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WSJ: 미 소비자들, '선구매 후지급' 방식으로 지출한다
- Bloomberg: 연방의회예산실, "내년 미인플레이션 연준 2% 목표에 근접"
- Bloomberg: 미 제조 생산, 자동차 파업 이후 반등

#### [미국 금융]

- WSJ: 더 많은 미국인들이 주식을 보유한다
- Bloomberg: 골드만삭스, 내년 S&P 500 예상치 5100으로 상향 조정

#### [오일]

- Bloomberg: 유조선들, 홍해 지역 피해 가면서 유가 상승

#### [에너지]

- Goldman Sachs: 카보노믹스: 제 3차 미국 에너지 혁명

#### [AI와 글로벌 경제]

- Goldman Sachs: 장기적인 글로벌 경제 상향 조정... 생성형 AI 덕분

#### [주택]

- WSJ: 떨어지는 주택 임대료, 인플레이션 낮춘다
- WSJ: 주택 시장, 수요는 많지만 여전히 매물이 없다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US 스틸, 일본 철강사에 1백41억불로 인수된다
- WSJ: 테슬라, 리콜 결정에도 문제없다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WSJ: Buy Now, Pay Later Keeps People Spending—Without Credit Agencies Knowing**

#### **미 소비자들, '선구매 후지급' 방식으로 지출한다**

- 미 소비자들은 '선구매 후지급' 방식으로 지출을 바꾸고 있다. 고금리로 가계 예산이 줄어들고 팬데믹 저축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다.
- 이에 따라 소비자 옹호단체들은 관련 금융 회사인 Afterpay, Affirm, Klarna 등이 신용카드보다 소비자들의 보호 기능이 적고 소비자들은 더 부채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 기관에 따르면 모든 미국인의 4분의 1이 '선구매 후지급'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같은 결제 방식이 전체 온라인 판매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보다 25% 증가한 수치라는 것.

## WSJ 기사

**Bloomberg: US Inflation Rate Seen Nearing Fed's 2% Goal Next Year in CBO Forecast****연방의회예산실, “내년 미인플레 연준 2% 목표에 근접”**

- 미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 활동이 둔화되면서 미 인플레가 내년도에 연준의 2% 목표에 근접해 갈 것이라고 연방 의회예산실(CBO)은 예상했다.
- CBO에 따르면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 지표인 개인소비지출은 내년에 2.1%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 에너지와 식품 비용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내년에 2.4%, 2025년에 2.3%로 둔화될 이라고 보고 있다.
- 이같은 판단은 12월 5일까지의 경제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Manufacturing Production Rebounds After End of Auto Strike****미 제조 생산, 자동차 파업 이후 반등**

- 미국 내 제조 생산량이 11월 반등했다. 이는 전미 자동차 파업이 끝난 후 자동차 기업들과 관련 부품 업계의 생산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 연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량은 자동차 생산이 7.1% 급증한 데 힘입어 예상보다는 적지만 0.3% 증가했다. 이 수치는 10월 공장 생산이 0.8% 감소한 이후 반등한 것이다.
- 그러나, 자동차 생산을 제외한 제조 생산량은 0.2% 떨어졌으며, 2달 연속 하락했다.
- 광업과 전력 생산을 포함한 총 산업 생산량은 0.2% 상승했다.

##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WSJ: More Americans Than Ever Own Stocks****더 많은 미국인들이 주식을 보유한다**

- 미국인 주식 보유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연준 관련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미국 가계의 58%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19년의 53%보다 상승했다.
- 이들 주식 보유 가계는 직접 개별 주식을 보유했거나 펀드, 퇴직 계좌 등을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경우 모두 포함된다.

- 이같은 추세의 원인은 팬데믹 기간중에 집에 갇혀있던 수백만명이 여분의 현금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으며 미 증권사들이 주식 거래 수수료를 폐지 했기 때문이다.

WSJ 기사

### **Bloomberg: Goldman Strategists Lift S&P 500 Forecast a Month After Setting It**

#### **골드만삭스, 내년 S&P 500 예상치 5100으로 상향 조정**

- 골드만 삭스는 내년도 S&P 500 지수를 한달만에 상향조정했다. 연말 랠리가 중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견고한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
- S&P 500지수가 내년말까지 5100 포인트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11월 중순에 예상했던 4700에서 거의 9%로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Bloomberg 기사

[오일]

### **Bloomberg: Oil Rises as BP's Red Sea Pause Underscores Risk of Disruption**

#### **유조선들, 홍해 지역 피해 가면서 유가 상승**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으로 홍해 지역에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석유 기업들과 유조선 선주들이 이 지역을 피해 운항하면서 유가가 상승했다.
- 브렌트 유가 2.8%나 상승해 배럴 당 78불에 거래되고 있다.
- BP Plc는 홍해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중지시킬 것이라 말했으며, Equinor ASA는 해당 지역의 선박들을 우회시키고 있다. Euronav NV 또한 당분간은 선박들의 안전을 우선시할 것으로 보인다.
- 오늘 월요일, 같은 업계 기업들 또한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선박에 선원과 선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선주들에게 대체 경로를 이용할 것을 요청했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

### **Goldman Sachs: Carbonomics: The third American energy revolution**

## 카보노믹스: 제 3차 미국 에너지 혁명

- 미 셰일 혁명은 성숙기를 지나 종국적인 쇠퇴길로 접어들고 있다.
- GS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 기술은 셰일 기술로 생산한 에너지 규모의 2배를 공급할 수 있다. 향후 10년간 3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Goldman Sachs 기사

### [AI와 글로벌 경제]

#### Goldman Sachs: Upgrading Our Longer-Run Global Growth Forecasts to Reflect the Impact of Generative AI

##### 장기적인 글로벌 경제 상향 조정... 생성형 AI 덕분

- 경제팀에 따르면 글로벌 GDP는 2027년 부터는 계속해서 상향조정된다. 생성형 AI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 AI 모델이 현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900개 이상의 미국 직종의 업무 내용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사용하고 다양한 국가의 고용 관련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생성형 AI가 궁극적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업무의 약 25%, 신흥국에서는 10~20%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oldman Sachs 기사

### [주택]

#### WSJ: Despite Record Home Prices, Housing Is About to Drag Inflation Down

##### 떨어지는 주택 임대료, 인플레이션 낮춘다

- 물가를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주택 가격이다. 주택가격은 11월까지 1년 동안 6.5% 상승했다. 주택 가격은 CIP의 35%를 차지하는데, 주택가격을 제외한다면 물가상승률은 1.4%에 불과하다.
- 그런데, 주택 가격 상승률은 주택 가격이 아니라 주택 임대료에 기반한다.
- Zillow에 따르면, 임대료는 11월 까지 올해 3.3% 감소했으며, 이는 2018년과 2019년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다. 게다가, 임대료 감소가 CPI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 둔화하고 있는 주택 임대료는 내년도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릴 것이며, UBS의 경제학자인 Alan Detmeister는 2024년 말까지 CIP 물가지수에서 주택 부분이 3.75%까지 감소할 것이라 추정한다.
- 연준 또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것이 지난주에 중앙은행이 내년도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낼 수 있었던 한가지 이유이다.

## WSJ 기사

### WSJ: Home Buyers Are Ready to Buy. But Sellers Aren't Selling. 주택 시장, 수요는 많지만 여전히 매물이 없다

- 올해 여름 이래로, 낮은 모기지 금리가 한때 주택 구매에 좌절했던 수요자들을 다시 시장으로 이끌고 있다. 문제는 다수의 주택 소유자가 과거 낮은 모기지 금리의 혜택을 누리며, 매물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이다.
- 올해 주택 판매량은 2011년 이래로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모기지 금리가 10월 거의 8%에서 지난주 7% 아래로 떨어지면서 수요자들이 반응하고 있다.
- 모기지 은행협회(MBA)에 따르면, 계절 조정을 기반으로 모기지 신청 건수는 6주 연속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작년에 비해 낮다고 한다.
-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에 더 많은 부동산 수요가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 WSJ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Nippon Steel to Acquire U.S. Steel for \$14.1 Billion US 스틸, 일본 철강사에 1백41억불로 인수된다

- Nippon철강사가 1백41억불에 US 스틸을 인하하도록 상호 동의함으로써 일본 철강사의 미국 제조 활동에서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된다. Nippon 철강사는 이에 따라 미국내에서 전기차에 사용되는 특수 철강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 피츠버그 소재 US 스틸은 주당 55%로 평가됐는데 지난 금요일 시장 마감 시 회사 추가에 프리미엄 40%가 붙은 가격이다. 오늘 월요일 오전에 US 스틸은 26% 급등했다.

## WSJ 기사

### WSJ: Tesla's Self-Driving Tech Has Competition 테슬라, 리콜 결정에도 문제없다

- 지난주 수요일, 미연방 교통안전국(NHTSA)은 자동 운행 장치가 설치된 2백 만대가 넘는 테슬라 차량을 리콜했지만, 이는 사실 생각보다 심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의 이윤과 운전 보조 기술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 규제당국에 의해 발견된 결함은 자동 운전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운전자가 운전대를 계속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테슬라가 사용한 보안 조치에 관한 것이었다.
- 이런 보안 조치는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강화될 전망이다.
- 이번 사건에서 테슬라가 받은 타격은 평판이며, 현재 테슬라의 기술이 아직, 일론 머스크가 넷플릭스에서 약속한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테슬라는 크루즈와 다른 형태의 자율 주행 기술에 접근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운전 보조 기능을 기반으로 성능을 점차 향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크루즈는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 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후자가 더 많은 관심과 높은 시장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는 전자가 확실히 선호되고 있다.

WSJ 기사

##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골드만, 달러 약세 전망 합류...엔·코로나화 등 강세 예측****"한국 원화·영국 파운드화도 상승 여력 많다" 평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내년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히 시사하자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달러화 약세 전망에 합류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케이힐을 비롯한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지난주 15일 내놓은 환율 전망 보고서에서 기존의 달러화 전망치를 대폭 수정했다.

이전보다 달러화가 더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